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검역 '한층 강화'

검역본부, 엑스레이·탐지견 투입… 불법 반입 단속 총력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출입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가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같은 치명적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과수화상병 등 각종 병해충이 해외 농축산물을 통해 유입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절 성수기에는 반입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수하물은 전용 엑스레이(X-ray) 검색을 거치고, 과일·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이 집중 투입된다. 또한 검역 회피자를 막기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된다.

아울러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최근 적발률이 높은 품목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반입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협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한다.

주요 적발 품목은 망고·구아바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며, 미신고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공항·항만 전광판과 방송, 온라인 광고, SNS 동영상 등을 통해 불법 반입 시 처벌 규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축산관계자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출·입국 신고 의무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필수 유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과 함께 외국 식료품점·전통시장·주요 항만 창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한다.

김정희 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로 해외 전염병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우리 농축산업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이 익산원예농협과 함께 2025년산 익산 배(신고)를 베트남에 수출하며 수출 선적식을 지난 19일 열었다.

익산 배 베트남 수출길 열다

전북농협, 내수 가격 하락 속 해외 판로로 활로 모색

전북농협이 익산원예농협과 함께 2025년산 익산 배(신고)를 베트남에 수출하며 수출 선적식을 지난 19일 열었다.

이번 선적식은 익산원예농협 관내에서 생산된 배를 처음으로 베트남에 수출하는 자리로, 농가와 관계자들에게 큰 의미를 남겼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경제지주 노해성 국장, 전북농협 안찬우 부본부장, 농협무역 허정구 전무이사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수출 성과를 축하했다.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배 생산량은 20만7천 톤으로, 지난해(17만8천 톤)보다 16% 늘었다. 여기에 여름철 고온과 가뭄으로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서 추석 성수기에 물량이 집중돼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9월 도매가격은 15kg 상자당 4만5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천 원)보다 10%가량 낮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농협과 익산원예농협은 해외 수출을 통한 판로 다변화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8월 캐나다 수출에 이어 이번 베트남 수출까지 이어지며, 전북 배는 세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번 수출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소매매장에서 시식 행사와 홍보를 진행해 전북산 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추석 맞이 특별 운전자금 5000억원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추석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오는 10월 21일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일 도래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2,500억원과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전북은행 측은 이번 특별운전자금 지원이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로 인한 결제 부족,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자금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두원 부행장은 "전북은행은 올해 도내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57억원을 특별출연해 1,600억원의 대출 공급을 지원했다"며,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하며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을 통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자치도·농어촌공, '한가위 큰장터 어서옵쇼' 성황

시민 발길 북적… 이틀간 매출 1억2000만원 돌파, 전북자치도청 광장서 34개 업체 참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한가위를 맞아 마련한 '한가위 큰장터 어(魚)서옵쇼(show)'가 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군산·고창 수협 등 도내 34개 업체가 참여해 바지락, 장어, 김 등 싱싱하고 다채로운 제철 수산물 150여 종을 시중가보다 최대 56% 저렴하게 판매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알뜰하게 장만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틀 동안 약 5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총 판매액은 무려 1억2천만 원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현장에서는 풍성한 시식 코너도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맛과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와 힘을 모아 우수한 도내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전과 혁신, 세계로 미래로!'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6일까지 제주서 개최

전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전과 혁신의 해법을 모색하는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와 교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2007년 처음 시작된 리더스포럼은 경제민주화와 규제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며 중소기업의 미래 비전과 경영 전략을 제시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포럼이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번 포럼의 슬로건은 '도전과 혁신, 세계로 미래로!'로,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속에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주역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행사 첫날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비전과 주요 과제를 제시, 중소기업인의 도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둘째 날에는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른 '중소기업 미국 진출 전략 세미나'가 주목된다. 바니 리 한미은행장,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대표, 스콧 리 LBBS 한인그룹 대표변호사 등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나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실질적인 전략을 전수한다.

이 밖에도 성남시의료원 한호성 원장, 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 정경 소장, HD 행복연구소 최성애 소장, 성필립보 생태마을 황창연 신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등 각계 명사들이 무대에 올라 다채롭고 울림 있는 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참가자들은 서귀포 모슬포 중앙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도 실천한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미래 비전 제시

전북테크노파크, '배터리 코리아 2025' 참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22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배터리 코리아 2025(BATTERY KOREA 2025)'에 참가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미래 비전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50여 개 이차전지 선도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전시·포럼으로, 차세대 배터리 소재, 스마트 제조 장비, 전고체 배터리 기술, ESS와 V2G 인프라 등 첨단 기술이 총망라됐다. 특히 글로벌 탄소중립 가속화와 AI 융합 기술이 한자리에서 공개되며, 세계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됐다.

개회식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 이광헌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광물가공, 소재, 셀,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심장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행사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 특화단지의 비전과 전략을 국내외 전문가 및 산업 관계자들에게 적극 소개했다. 많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찾으며 새만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참가를 통해 전북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 글로벌 K-배터리 생태계 완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오상근기자